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8월 6일(금)
...(음력 6월 28일)..
Пятница
6 августа 2021г.
№ 30 (11947)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8월 8일, 8월의 두 번째 일요일은 건설 분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사할린 유권자들 현 주소 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2021년 9월 19일 제8차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 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8월2일에는 사할린주에서 유권자들을 현재 주소지 유권자 명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었다.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할 수 있다.

8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모든 지역의 선거위원회, 사할린주 다기능센터 담당 부서, '고스우슬루기' 정부 포털 사이트로 제출.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사할린주 구역 선거위원회로 제출.

사할린 지역 선거위원회 각 구역 선거위원회에서 평일 16시 - 20시까지, 휴일 오전 10시 - 14시까지 투표 신청 등록을 할 수 있다.

유권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는 지역 선거위원회 목록은 선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거 구역 번호는 러시아 지도상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와 구역 선거위원회 서비스의 도움으로 정할 수 있다.

사할린주 선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주민들이 현 주소지의 선거 구역에서 투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9월 17일 - 19일까지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할린주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추가 선거로 오후, 홈스크, 네웰스크, 아니와 노글리키 지역에서 하루 동안 치르게 된다.

(사할린주 선거위원회 자료에서)

8월부터 스베르뱅크에서도 '사할린 주민 카드' 발급

'사할린 주민 카드'는 훨씬 더 간편하게 사회적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할린 주민 카드'의 기능은 미르 결제 시스템 카드 소지자들에게 간편해지는데 주내 주민 16만 명이 미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카드는 '오스트로와. 65' 앱을 통해 독자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또한 은행 지점에서 스베르뱅크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원하는 고객에게 앱을 다운 받도록 도우며, 미르 시스템이 있는 카드를 연결시키고 등록하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사할린과 쿠릴의 55세 이상 주민들은 거주지의 사회적 지원센터 사무소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9월1일부터는 학생 카드를 발급한다. 기능은 단계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 카드로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식비도 지불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에 출입증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스베르뱅크 유즈노사할린스크 지점장인 나탈리아 레이드만이 말했다.

사회복지카드로 70세 이상의 사할린 주민은 무료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며, 55세 이상은 문화 및 체육 기관 방문과 구매 후 높아진 적립률, 상점과 약국에서 1.5% - 2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할린주 주민 카드로 다양한 사회적 지원금과 연금, 임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온라인상의 구매도 결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스베르뱅크에서는 특별 우대자와 퇴직자를 위한 카드 서비스는 무료다.

사할린주 전 주민용 카드는 전자 방식의 필수 의료보험과 개인 의료보험 번호와 같아 사할린의 모든 국립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소지자는 '오스트로와.65' 앱을 통해 국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때에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의견도 남길 수 있다.

사할린 주민 카드는 '이투루프'은행, '가스프롬뱅크(가스프롬 은행)', '로스셀호즈뱅크', '아시아 태평양'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현재 주민 4만2천여 명이 카드 발급 신청서를 제출했고, 1만8천명의 사할린과 쿠릴 주민이 주민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정부 홍보실에서 전했다.

단신

사할린주, 국가두마 의원 후보 등록

제167호 사할린 단일선거구에 따른 제8대 국가두마 의원 선거에 8명의 후보가 나설 예정인 가운데 7월29일에 첫 4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승인된 후보는 드미트리 플레예르(러시아 자유민주당), 알렉세이 코르니엔코(러시아 연방 공산당), 올렉 코레츠키(러시아 공산주의당), 알렉산드르 콘코브(조국당)이다.

8월 4일 167 호 사할린 단일선거구 선거위원회 회의에는 정당들이 추천한 다음 4명의 후보가 등록되었다. 안톤 구르킨(야블로코), 게오르기 카를로브(러시아 통합당), 로만 웨제네예브(새로운 국민당), 알렉산드르 아니스트라토브(정의로운 러시아-애국-진리를 위하여)이다.

주도시, 난방 시즌 적극 준비

세르게이 나드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이 회의를 열어 2021-2022년 도시지역 난방 시즌 준비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수행된 작업에 대해 시 경영부와 사할린 공공기업, 시 수도국, 사할린 지역 '전력 서비스' 공사가 보고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난방시즌 준비는 계획대로 돼가고 있다. 올해는 7km의 온수관 및 수도관을 교체할 계획이며, 9월 중순에는 시설 대상의 모든 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교체 및 액체 연료의 필요한 양을 비축해 둔 가운데 연료 공급을 위한 장기계약도 체결됐다.

전과 같이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난방 시즌은 10월1일부터 시작된다.

8월4일, 코로나19로 5명 사망

2021년 8월 4일 기준 사할린주 코로나19 현황 현재 1,864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중 856명이 입원치료 중이다.

총 사망자는 148명이며, 비어있는 병상은 279개이고, 일일 확진자 수는 105명이다.

백신 접종자는 총 150,170명이며 이 중 52명이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총 589명이다.

집단 면역 형성률은 48.3%이며, 하루 2차 접종자는 31명이다.

현재 백신은 2만4천322 회분이 남아있다.

현재,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 완치자 약 3만 명이 항체를 갖고 있는 가운데 사할린 주의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4만6천 906명의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60%가 항체를 보유해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사할린주 정부가 간주하는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집단 면역 형성률은 39.2%이고 지역별로는 알렉산드롭스크 사할린스크 지역 - 53.3%, 우글레고르스크 지역 - 50.8% 노글리스크 지역 - 47.5%, 아니와 지역 - 29.7%, 유즈노쿠릴스크 지역 - 30.6%, 오후 지역 - 35.2%이다.

새고려신문

2021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56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한국 정부, 사할린 현지 한인 묘 추가 조사 시작

제3차 사할린 한인 묘 현황 파악 사업으로 지난 7월 31일(토) 한국 국토정보공사에서 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단장 이향복 팀장)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한국 정부(행정안전부)가 사할린 한인 묘지 조사 및 강제징용 사할린동포 유골 봉환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 유골 봉환이 연기되었다고 전하면서 대일항쟁기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후 사망한 한인 희생자의 묘지 실태를 추가로 조사하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종료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계약기간이 올해 11월 말까지로 연장되었다. 한인 묘지 조사 사업은 국토정보공사가 행정안전부에서 위탁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조사원들은 올해 코르사코브, 아니와, 돌린스크, 토마리 공동묘지를 추가로 조사하여 사할린 한인 집단 거주지 인근 무인가 공동묘지에 매장된 한인 묘(추정묘 포함) 현황 파악에 나선다고 전해졌다.

7월 31일 사할린에 도착한 조사팀은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행정부 관계자와 한인회 대표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한국 조사단은 이미 주 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소장 광기동), 주 한인협



회(회장 박순옥), 주 한인이산가족협회(회장 박경춘), 주 노인회(회장 김중길)를 비롯해 토마리, 돌린스크를 방문해 여러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한국 공관과 주 한인협회 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사전 조사는 8월 14일까지 이뤄지며 14일에 새로 들어올 팀이 일부 사전조사팀과 합류하여 본격적으로 세부 조사에 나선다.

9월 4일에는 사할린에 행정안전부 과거 사업무지원단 검수팀이 방문하여 한인 묘 검수를 할 계획이며, 조사 및 검수팀은 9월 11일 현지 업무를 마치고 귀국할 계획이다.

사할린에서 한인 묘지 조사 및 유골 봉환 사업은 사할린주 한인협회 김홍지 고문이 담당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배순신 본사 기자)
(사진: 토마리 구역 행정부에서, 김홍지 고문 제공)

올해 사할린동포 총 1079명 영주귀국 신청

지난 6월 30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주귀국 지원 신청 접수가 마감되었다. 본지 2021년 7월 2일호에 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를 통해 접수 신청 현황에 대한 기사가 이미 게재되었다.

본사 기자 배순신 기자는 올해 영주귀국사업 현황 설명을 이번예 대한민국의적십자사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복지사업팀 김동기 팀장님께 부탁드렸다.

김동기 팀장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접수 현황에 대해 말하자면 총 688세대 1,079명 신청했는데 그중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205세대 (285명), 재외공관을 통해 463세대(793명)입니다.

신규 신청자는 30세대(75명)이고 기존 영주

귀국자는 638세대(1,004명)입니다.

단, 현재 재외공관을 통해 들어온 신청자에 대해 서류를 검토 중이며 영주귀국 선정위원회 등 전체 일정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점검 중입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시점에서 영주귀국사업은 대한민국 외교부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 선정 대상, 통보 계획, 임대아파트 확보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외교부에서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맞게 사할린동포들이 원활하게 국내로 입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전했다.

<전통의 힘> 전시회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

유엔이 국제 원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제정한 국제 원주민의 날(8월9일)을 앞두고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박물관에서 8월3일 <전통의 힘>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에 원주민의 의복, 부적, 생활용품, 식물 표본집 등 50여 점 가까이 전시되었다. 전시품들은 오하, 티몹스크, 포로나이스크 향토 박물관과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박물관의 소장품들이다.

전시회 활동 프로그램에는 상호작용 수업, 강의, 활동교실, 관람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들

은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문학예술 박물관과 사할린주 향토 박물관의 전문가들, 초청 강사, 소수민족 원주민 대표들, 극동지역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원예 연구소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했다. 이에 대한 정보는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통의 힘>이란 전시회 명칭은 고대 '코이원군'족의 장로 예프로시니 쉬칼리킨의 책 제목에서 가져왔고,이 책에 대한 발표가 개막식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지식인들, 지식 게임에서 15개의 메달 획득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극동컵 지식게임에 참가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두 팀이 우승을 거두었다. 사할린의 청소년들은 팀별 경기에서 10개, 개별적으로 5개의 메달을 거두었다.

'에루디트 크바르테트(4인의 지식인)', '브레인링(두뇌 결전장)', 개별 종목인 '개별 게임'에서 게임 원칙상 1분 안에 답을 제출하는 경기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김나지아 팀과 시선발팀(1호,2호,3 호 김나지아와 1호,2호 리제이에서 선발)이 지식의 명예를 지켜냈다.

고학년(10학년-11학년)그룹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선발전은 주요 경기와 <4인의 지식인> 경기에서 1위를 차지, <브레인링(두뇌 결전장)> 경기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개별 게임> 개별적 경기에서는 1호 리제이의 소피아 로파트코가 최고 성적을 거두었고, 3호 김나지아의 스베틀라나 로마노와가 3위를 차지했다.

5학년-9학년 그룹을 대상으로 한 주요 경기에서는 2호 김나지아의 '스포르나야(논쟁)'팀이 1위, '자베지 모즈기(뇌를 작동시켜라)'팀이 2위를 차지했다. <브레인링> 경기에서는 2호 김나지아의 '스포르나야'팀이 2위, 같은 학교의 '자베지 모즈기'팀이 3위를 차지했다. <에루디트 크바르테트> 경기에서는 2호 김나지아의 '자베지 모즈기'팀이 최우승, 같은 학교의 '스포르나야'팀이 2위를 차지했다고 시행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Интеллектуал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везли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15 медалей

Дв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е команды одержали победу на кубк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м играм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копилке юных островитян 10 командных и 5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медалей.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ую честь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 играх в основной дисциплине, предполагающей ответ за одну минуту, "Эрудит-квартете", "Брейн-ринге"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Своей игре" отстаивали две команды гимназии №2 и сборная города (гимназии №1, 2, 3, лицеи 1, 2).

В старше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10-11 класс) сборная команд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основной дисциплине и "Эрудит-квартете" завоевала первые места, в "Брейн-ринге" — второе.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Своей игре"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показала Софья Лопатко из лицея №1,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 Светлана Романова из гимназии №3.

В младше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5-9 класс) в основной дисциплине первое место досталось команде "Спорная" (гимназия №2), второе — команде "Заведи

мозги" (гимназия №2). В "Брейн-ринге" второе место завоевала команда "Спорная" (гимназия №2), третьей стала команда "Заведи мозги" (гимназия №2). В "Эрудит-квартете"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показали ребята из команды "Заведи мозги" (гимназия №2), на второй строчке — команда "Спорная" (гимназия №2),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Невельск, 바다사자의 날 기념 요트 경주 개최

바다사자의 날을 기념하여 요트 경기 오픈 선수권대회가 네벨스크에서 열렸다.

7월30일부터 8월1일까지 청소년 요트인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가운데 우승자들이 상을 차지했다. 경기에는 9세 - 16세까지 네벨스크와 흠스크에서 온 3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경쟁은 '루츠' 종목과 '옴티미스' 종목 사이에서 진행되었는데 각 요트 경기 종목별 5개 경주에서 경기가 펼쳐졌다. 요트 경기의 주심판은 흠스크 출신으로서 올림픽 하계 스포츠 종목 예비 학교의 노련한 강사인 보리스 웨셀리코브가 맡았다.

"치열하게 경쟁을 치르는 장면은 특별했다. 약간의 바람이 부는 날씨는 낭패였다.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날씨였어도 요트 선수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도 메달과 우승컵을 향한 선수들의 열띤 경쟁을 막지는 못했다."고 네벨스크 스포츠 학교 진행위원회가 강조했다.

경기 우승자와 수상자들에게는 우승컵과 메달, 상장과 요트 경주 후원회가 제공하는 상품도 수여했다. 이외에도 참가자들과 강사와 의료진들은 요트 스포츠의 상징을 담은 티셔츠를 수여받았다고 주 스포츠부 홍보실이 전했다.

В Невельске регату посвятили Дню сивуча

Открытое первенство по парусному спорту — регата, посвященная Дню сивуча, — завершилась в Невельске. В течение трех дней с 30 июля по 1 августа юные яхтсмены состязались в упорной борьбе, после чего награды нашли своих победителей.

В турнир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3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Невельска и Холмска от 9 до 16 лет. Борьба шла среди классов "Луч" и "Оптимист". Соревнования состояли из пяти гонок для каждого класса яхт. Главным судьей регаты выступил опытный тренер школы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лет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из Холмска Борис Веселиков.

— Борьба была острая, зрелище необыкновенное. Погода немного подвела, вернее, ветер. Замечательная погода для отдыхающих, но не для яхтсменов! Но это не помешало побороться спортсменам за медали и кубки, — отметили в дирекции невелинской спортшколы.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еров соревнований наградили

кубками, медалями и грамотами, а также подарками от спонсора парусной регаты. Кроме того, участники, тренеры и медицинский работник получили футболки с символикой парусного спорт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마을이여, 살아라!> 티몹스코예 마을 주민들만의 기념일 축하

7월 31일, 티몹스코예 구역의 팔레보 마을 형성 135주년과 야스노예 마을 형성 70주년을 기념하여 <마을이여, 살아라!> 기념행사가 거행되었다.

마을을 야스노예(맑은)라 이름하는 데는 다 까닭이 있었으니 이날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했다. 야스노예 마을 문화회관의 행사장이 찬란하게 장식된 가운데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행사에 티몹스코예시구 부시장인 이리나 크라슈크는 귀빈으로 참석하여 주민들의 기념일을 맞아 축하 인사를 전하고, 고향 마을을 위해 다년간 성실하게 선행을 한 주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또한 이리나 크라슈크는 마을의 고령자들과 결혼한 지 50년 이상된 부부들, 신혼부부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마을에 2021년에 탄생한 가장 어린 주민들에게도 선물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 <기념 파이> 경연이 진행되어 야스노예 마을 주부들이 파이를 구워 경연을 벌인 가운데 우승자와 참가자들이 상을 받은 후, 자신의 걸작 요리들을 손님들에게 대접했다.

"Живи, деревенька!" — жители тымовских сел отпраздновали их юбилей

31 июля состоялся торжественный праздник "Живи, деревенька!", посвященный 135-летию со дня образования села Палево и 70-летию со дня образования села Ясное.

Не зря село зовется Ясное — погода выдалась солнечной и теплой. На ярко украшенной площади дома культуры села Ясное собрались сельские жители, чтобы отметить юбилей.

Почетным гостем праздника стала Ирина Красюк, вице-мэр Тым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которая поздравила с юбилеями жителей сел и вручила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людям за добросовестный многолетний труд на благо родного села. Ирина Красюк также вручила подарки должникам сел, супружеским парам, прожившим в браке 50 и более лет, молодоженам.

Подарки были вручены и самым маленьким жителям села — малышам, родившимся в 2021 году. На празднике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конкурсы, например, "Юбилейный пирог". Ясновские хозяйшкы напекли пироги, а после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и участников угостили гостей своими кулинарными шедеврами, сообщает тымовская ЦКС.

(8면에 계속)

사할린의 사월

전영희

벚꽃 피는 한국을 부러워하며
눈이 빠지게 우리는 사월을 기다렸어요.
사할린에도 봄꽃들이 피겠지...
그런데 꽃은커녕 눈 바람 추위가
이 도시를 꽁꽁 얼려 놓았어요.

거센 바람이 삼일 동안 들이치더니
눈보라가 되어 우리는 그만
한 보름 동안 또
겨울의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진눈깨비가 뒤섞여 쌓이다 흐르다,
길은 철벽철벽, 옷도 신도 다 젖어
마음도 무거운데
감기라도 걸릴까, 큰일 났다!
얼른 뜨거운 물로 샤워했어요.

사월 풍설의 심술 추위 뒤편에는
아, 청어떼가 해변에 찾아와
팔딱팔딱거리며 우릴 위로해요.
알 낳기 위해 온 힘을 쓰며
펄떡이는 대 이주의 길목에서
사람들은 얼씨구나, 손으로 포대에
쏟아 담으며 청어를 잡았어요.

고마워요, 하나님!
꽃 대신 청어인가요?
맑은 하늘에 햇빛은 쨍쨍한 날
머칠 찬바람에 쇠파리도 사라지겠다.
손질한 청어, 빙어 팔리기에
딱 좋은 사월.

알고 보면 사할린의 사월은
좋은 것들이 천지로 넘쳐요.
물고기뿐만 아니라
다시마, 미역에 해삼, 멍게도
비타민 부족에 고민하는 우리의 몸을
값도 받지 않고 살려주지요.

봄꽃은 아직 멀었지만
눈 녹은 물 팔팔 흐르는 냇가에
눈동이 나물 야쵸베끼,
산나물을 금방 데쳐서
된장 고추장 참기름에 무치면
꿀맛 같은 봄맛!

우리는 기대해요 오월을,
산에는 은방울꽃 향기
들에는 미나리아재비 노란 꽃송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해요.
조금 늦게 꽃이 핀다고
애ത해 하지 말아요.

추운 땅 러시아는 한국과 달라요.
풀, 꽃, 열매들은
자연의 뜻과 시간에 맞추며
자라고 피며 열매를 줍니다.
그러니 나쁜 날씨는 없어요.
고맙게 받아들여요, 우리.

2021년 6월 1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새고려신문 살리자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
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
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
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
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
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
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
ние.

나의 일생의 섬, 사할린 [어머님의 추억]

(전호의 계속)

나의 학창 시절과 직장 저의 세 번째 염원

공부를 하기 위해 저는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교복만 입고, 다른
옷은 없었고, 배낭속에 비누, 칫솔, 수건, 솜담요를 넣었습니다. 버스를 타
고, 기차를 타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작은
아버지께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살고 계셨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집에
는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저는 다락방에서 자리를 잡고 입학시험을 준비
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 (받아쓰기), 산수 및 음악 듣기 시험에 합격
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한 적이 없지만 음악에 소질이 있다는 인정을 받았
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사범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염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넌 어디에서 왔니?
-사할린에서...
-그곳은 어디냐?
-저기 도로가 구불구불하게산 고개로 넘어가고, 해안으로 내려
가 있는 곳이다.

어느덧 학창 시절 4 년이 흘렀습니다. 사범전문학교에는 다른 악기가
없어서 공부하는 동안 만돌린을 연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민속악기 오
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오케스트라는
45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도자는 지휘자 게오르기이 표도로비츠 베르
드니꼬브와 작은아버지(전두한)는 음악가, 작곡가, 아코디언 연주자였습니
다. 우리 아마추어 예술단은, 선거, 연구소 및 군부대에서 콘서트를 진행했
습니다. 우리 사범전문학교의 합창단과 민속악기오케스트라는 예술 콩클
에서 항상 음악전문학교를 이기면서 1 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범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인 우글레고르스크시에 돌아오니, 조
선 7 년제 학교가 개편 후, 8 년제 학교가 되었고, 학교의 수업은 러시아어
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학교 개편으로 조선 국적을 가진 모든 초등학교
교사가 감축되었습니다.

제가16 살이 되었을 때 저는 소련 여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
지도 아버지께서는 무국적자였기 때문입니다. 친척 집에서 회의를 하고,
앞으로 제가 태어난 고향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련 국적을 받
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네 번째 염원

모스크바대학교에 입학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
었고, 무국적자였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허가는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까지였습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다. 나는 6개월간 실직 상태였습
니다. 그 후 저는 8 년제 학교에 사서로 취직되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전적
으로 러시아어로 진행되어 많은 선생님들에게는 이것이 쉽지 않았을 거
라는 추측에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남편이 될 사람, 이 블라지미르 니콜라예비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외관상으로 북방
소수민족과 매우 비슷한 생김새였습니다. 그가 한민족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학생들과 합동행사, 경시대회, 아마추
어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친구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1966 년 5월에 우
리는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의 이름을 직접 선택하여 잔나와 보바
로 지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55 주년을 맞이하여 에메랄드 결혼식을 기
념했습니다.

22년 지나갔어도, 항상 저는 시어머니이신 최 타치야나 (1904-1998)
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회상하곤 합니다. 시아버지이신 한덕춘 씨 (1901-
1961) 는 사회주의 노동영웅이십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가 여전히 잠자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벌써 바닷가에 나가서서 타타르 해협의 파도에 밀
려온 해초, 미역, 문어, 조개, 생선 등을 주워서 집으로 가져오시곤 하셨습
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추운 겨울에는 늘 맛있는 해산물과 미역국을 만들
어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저를 도와주시고, 통신으로 공부하도
록 도우셨습니다.

통신 학업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향 도시에서 결
혼 후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내가 소련 공민권을 받도록 하기 위
하여 모스크바에 다녔었습니다. 저는 소련 여권을 받은 후 소련 공민이 되
었습니다. 소련 여권만 있으면 전국 어느 대학교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사범대학, 화학 및 생물학 학부에 입학하
고, 통신과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진급시험
을 보러 다닐 때 한 아이를 시어머니께서 맡아주시고, 다른 아이는 데리고
다녔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교육국에 가서 장학관에게 진급시험에
아이들 데리고 가서는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
탁을 했습니다. 교육국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의 말을 듣고 아이를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 그
분을 기억합니다. 다행히 유치원은 사범대학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유치

원 중급반에는 자리가 없어서 아이는 초급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감
사했습니다. 저의 아이들이 이미 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대학교 졸업장
을 받았습니다. 몇 년 후, 네 번째 염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나를 '나탈류쉬까'라는 별명을 지어주었고, 우리 가
족은 '부영새'라는 별명을 지어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
장 중요한 목표는 공부였습니다. 좋아하는 속담은 '한 평생 살며, 한 평생
배운다.' 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생선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요리입니다. 여가 시간에는 독서, 낚말 맞추기, 외국어 배우기,
탁구 치기, 아코디언 배우기를 좋아하고 가장 좋아하는 곡은 «사할린의
봄» 작곡가인 작은아버지(전두한)께서 만드신 노래입니다. 좋아하는 팝
송 가수는 «러시아의 황금 목소리»-니콜라이 바스꼬브입니다.

큰 땅의 생활

어려운 90 년대가 되었습니다. 직업의 변화로 하바롭스크시로 이주하
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외방송국의 직원인 조선말방송 아나운서로 취직했
습니다. 10년 후, 국제 방송국은 폐쇄되었고 모스크바가 본사인 국제 라디
오만 남았습니다. 불행의 도움으로 행복이 생겼습니다. 저는 하바롭스크 국
제 경제법률대학교 국제경제관계학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제안을 받았
으며, 그 다음에는 태평양국립대학교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하바롭
스크시 제 15호 중학교에서 계속 역사와 미술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아
마추어 창작예술 클럽 «로드니크»의 협회 회원이 되어 «로드니크» 전시
회에 여러 번 참가했습니다. 교원으로 일하면서 «민속 예술 축제의 제 2 수
상자», «노동노병», «명예 교원» 메달과 칭호를 받았습니다.

'진짜 사나이가 남편이 되고, 직위를 얻는다.' 는 말은 정확합니다. 저
는 마음속 깊이 항상 후방에서 뒷받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존
경받을 만한 연령이 시작됐습니다.

저의 다섯 번째 염원

교육 경력이 50 년이 넘었는데 남편처럼 '노동의 노병' 칭호를 받아고
했는데 서류 제출 중에 정부의 표창장이 있어야만 수여된다는 새 법이 나
왔습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모국 생활

동산(東山)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2013년 12 월에 남편과 함께 '역사적인 영주 귀국' 프로그램으로 한
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밤에 도착하여 아파트 열쇠를 받았습니다. 우
리는 아파트 안에 들어가자마자, 방 3 개, 즉시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꼈
습니다. 온돌방이라서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치, 된장이 있
고, 모서리에는 쌀 한 섬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고향인 새로운 곳에
서 새로운 삶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
립니다. 하바롭스크시에서 우리 가족 네 명은 한 칸 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파주 적십자 봉사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
습니다. 특히 최미경 봉사원님께 따뜻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
게 여러 달 동안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어떤 문제든지 참을
성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시간을 내주면서 설명하셨습니다. 제
가 손을 수술했을 때에 최미경 님이 병문안을 와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파주 미술협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며
교하 아트센터에서 매월 전시회에 참가하며 파주 미술협회에서 조직한 소
풍이나 그림을 그리러 떠납니다. 그 기간 동안 남편은 12 점의 그림을 그
렸습니다. 그는 한국의 자연에 매력을 느낍니다. 한국문화 재단으로부터
두 번이나 재정지원금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문산 선유리 아파트는 항상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가 맑은 언덕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산은 어린 시절의 신비로운 사할린섬, 내 삶의 섬,
내 인생의 섬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자식들은 모국 방문을 오면 '고요하
고, 잠자는 구역'이라고 말합니다.

저의 여섯 번째 염원

행복해야죠. 저는 여성이 완전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족, 남편,
자녀, 마음에 드는 직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꿈이 이루어
졌습니다. 저는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십자편으로 모
국방문을 세 번 왔다 갔으며, 지금은 역사적 고향에서 품위있는 노후를 즐
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들에게 끊임없는 도움과 깊
은 배려를 해주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할린동포들은 매년 기념하는
광복절에 경축 회의와 콘서트에 초대되어 식사도 합니다. 금촌 시청에서
는 축제를 주최하고 항상 사할린동포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줍니다. 우리
사할린동포들에게 새로 기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직계비속
이 한반도 평화 수도 파주에 영주귀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산에서 어머님의 추억 이야기를 듣고 딸 이 잔나 적었음
2021 년 7 월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осква и Сеул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двойного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ая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Южной Кореи намерена тесно сотрудничать с Россией, в частности,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двойного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В ходе недавней поездки в Россию комиссар налоговой службы Ким Тэ Чжи провел встречи со своими российскими коллегами по обсуждению координаци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Ким провел двухстороннюю встречу в Москве с Даниилом Егоровым, комиссаром федеральной налоговой службы России. Впервые главы налоговых ведомств двух стран смогли провести официальную встречу по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ю.

В ходе встречи Ким предложил, чтобы две страны приняли взаимную процедуру соглашений (MAP) и соглашение по ценообразованию (APA), которые смогли бы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двойного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Его российский коллега Егоров дал утвердительный ответ и пообещал рассмотреть вопрос.

Перед встречей Ким провел консультаци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а, работающих в России, и выслушал их проблемы, связанные с вопросами налогов для передачи их российским налоговым органам.

Южнокорейская лапша становится мировым экспортным трендом

Южная Корея продала за рубежом рекордные объемы лапши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в первые шесть месяцев этого года.

В таможенной службе Кореи сообщили, что экспорт лапши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вырос на 5,8 процента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до US\$319,7 миллиона, побив прежний рекорд в \$302,8 миллиона, установленный в том же период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амым крупным импортером стал Китай с \$68,13 миллиона, далее следуют США с \$37,3 миллиона, Япония с \$33 миллиона, Тайвань с \$16,2 миллиона и Филиппины с \$12,1 миллиона.

Но фактическое потребле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лапши за рубежом может быть вдвое больше, поскольку цифры не включают продукцию, произведенную лидерами рынка Nongshim, Paldo и другими компаниями на 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за рубежом.

ИА РУСКОР

Новости диаспоры

ПРОГРАММА "ЗДОРОВЬЕ" ДЛЯ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РЕАЛИЗУЕТСЯ НА САХАЛИНЕ

С 2019 года РООСК совместно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еждународным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м Фондом РК реализует программу "Здоровье"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1-го поколения. Ее участниками уже стали многие пожилые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ющие в различны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Углегорск, Красногорск, Шахтерск, Макаров, Невельск и т.д.)

В этом году эта программа стартовала в конце июня. Д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программа реализуется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ОСК и молодеж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рачи-специалисты, волонтеры уже побывали в Аниве, Быкове и Долинске.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роходит медицинск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занятия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болезни Альцгеймера,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праздничный обед,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вручают подарк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РООСК, в Аниве 1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1-го поколения, в Быкове - 10, в Долинске - 25 чел. Пожилых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е могли посетить мероприятия в силу различных причин, врачи и волонтеры посещали на дому.

Работа по программе "Здоровье" продолжается. Осенью её участниками должны стать пожилые жите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общили в РООСК.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ДОЛЖАЮТСЯ РАБОТЫ ПО ОБСЛЕДОВАНИЮ МОГИЛ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эт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работа по обследованию могил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жертв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и перезахоронению их останков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ланировалось, что эти работы будут завершены в декабре 2020 г., но из-з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обследования перенесли на этот год.

В планах провести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Долин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Анивском и Томаринском районах. По итогу исследований будут созданы карты захоронений и расшифровки надгробий.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работы в связи с обследованием могил 31 июля на Сахалин прилетела делегация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оставе 4-х человек. Делегация побывала с визито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ую канцелярию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сетил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Томаринского и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ов. Планируется визит в Анивский и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ы.

Как сообщили редакции, исследования будут идти до сентября месяца. Основные работы начнутся в середине августа. Пока же идет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работа.

Всемерную помощь в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ы на Сахалине оказывает советник РООСК Ким Хон Ди.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овалось провести перезахоронение останк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жертв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и. Их собирались отправить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 сен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Но в связи с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ситуацией, решено вновь отложить д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торая групп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планирует прибыть на Сахалин в середине августа.

ФОРУМ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ХОДИТ ЕЖЕМЕСЯЧНО

Молодежна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ИИ, которая активно занимается проблемам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весны этого года проводит ежемесячный форум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где историки, специалисты и общественники обсуждают проблемы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знакомятся с историческими фактами в формате он-лайн(через Zoom). Очередной такой форум прошел 28 июля. Докладчиком стал историк и переводчик Ким Ден Хек,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вил книгу сахалинского историка Юлии Дин.

Виктория Бя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Граница между Севером и Югом Кореи пройдет через Хабаровск

17-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ойдет в Хабаровске, сообщает Транссиб-инфо со ссылкой на пресс-службу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Стоит напомнить, что в 2004 году корейцев официально признали коренным народ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Хабаровский фестиваль — традиционная площадка, где на паритетных началах объединяются Северная, Южная Корея и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К сожалению, из-за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пандемии, как 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фестиваль пройдет онлайн в эфире телеканала «6ТВ», который будет транслировать фестив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и на канале в YouTube.

Фестиваль посвящен 76-й годовщин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оветскими войсками, 102-летию Первоапрель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 Корею.

15 августа для корейцев — не просто день в календаре. В 1945 именно в этот день году капитулировавшая Япония освободила Корею от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равления. С 1949-го года для ж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15 августа —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Чогукхэбани-нал —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Родины» в КНДР и Кванбок-чоль — «праздник возвращения света» или День возрождени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программе фестиваля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проект об истории появления корейце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о вкладе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народ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т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и в общее дело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Зрителей телеканала и канале в YouTube ждут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блюда, программа о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стюмах, видах спорта и языке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а также викторина на знание истории и традиций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Организатор —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 Ассоциация вносит существенный вклад 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сохранение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и межконфесс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в Хабаровском крае, — отметила Леся Куля, исполняющая обязанности начальника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рая.

Напомним,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оходит в Хабаровском крае с 2004.

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РК утвердил закон о переносе выходных дней

3 августа 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РК утвердил закон о переносе выходных дней. О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жителям страны дня отдыха в ближайший понедельник, ес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раздник приходится на субботу или воскресенье. До сих пор данная система действовала в отношении тре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аздников: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ллаль, Осенний праздник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и День детей. Теперь она распространилась на День первоапрельского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15 августа, День осн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3 октября и День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Хангиль 9 октября. Закон не касается двух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аздников - Дня рождения Будды и Рождества. Он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 част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компаний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в которых трудятся менее пяти человек. Поскольку закон вступил в силу немедленно,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у жителей РК будут тр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выходных дня - 16 августа, 4 и 11 октября.

KBS World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РК подтверждены первые случаи варианта коронавируса «Дельта плюс»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в стране подтверждены первые два случая варианта коронавируса «Дельта-плюс». Согласно выводам специалистов, он является более заразным, чем вариант вируса Дельта, легче связывается с рецепторами клеток лёгких и устойчив перед моноклональными антителами. Беспокойство экспертов вызывает то, что вариант «Дельта плюс» может быть более устойчив к вакцинам. Если эти опасения подтвердятся, то пандемия фактически начнётся заново. В одном случае вирус обнаружен у мужчины, который никогда не был за границей. Между тем, за сутки 2 август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К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1.202 новых случая COVID-19. Снижение числа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ой неделей медики связывают исключительно с сокращением числа тестов на вирус в выходные дни, и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недели оно увеличится. Орган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еспокоены тем, что четвёртую волну пандемии пока не удаётся поставить под контроль. Если число новых случаев инфекции не удастся сократить, меры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могут быть ужесточены. В связи с ухудшением эпиде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ах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зывает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проводить летние отпуска дома.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утро 3 августа, одной дозой вакцин привиты более 20 млн человек, или 39%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7 млн 216 тыс. человек вакцинированы полностью.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агентством Korea Research по поручению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с 27 по 29 июля, 84% респондентов поддерживают введение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четвёртого уровня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20,5% опрошенных считают необходимым сохранить его до конца августа, 25,1% - до конца сентября, 20,3% - до конца ноября.

Японский дипломат отозван на родину после оскорбительных высказываний о президенте РК

Старший советник-посланник посольства Японии в Сеуле Хирохиса Сома отозван на родину после того, как его оскорбительные высказывания о президенте РК Мун Чжэ Ине вызвали критику в обеих странах. 1 августа японская газета «Нikkeй симбун» сообщила, что Хирохиса Сома возвращается на родину по истечении срока работы. Он занимал должность старшего советника-посланника более двух лет, хотя срок работы в этой должности составляет два года,- уточняет газет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подтвердил информацию об отзыве Хирохисы Сомы. «По данному вопросу япо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олж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данные», - добавил он, не приведя подробностей. Сомы пока остаётся в РК, но, как ожидается, скоро вернётся в Японию. Его высказывания усилили напряжённость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Сеулом и Токио, обострив проблемы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период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а также экспорт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Сложившаяся ситуация стала одной из причин реш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К не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Токио.

Совокупный грузооборот аэропорта Инчхон превысил 50 млн тонн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принятый в эксплуатацию 20 лет назад, обрабатал за это время более 50 млн тонн грузов. Как сообщила 3 августа компания-оператор аэропорта, 50-миллионный рубеж был преодолен, когда самолёт компании Kogean Air вылетел в Атланту, имея на борту 70 тонн груза. Совокупный грузооборот аэропорта превысил 10 млн тонн в 2006 году, 20 млн тонн - в 2010 году, 30 млн тонн - в 2014 году и 40 млн тонн - в 2018 году. Стоимость товаров, экспортированных и импортированных через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десятилетия, оценивается в 15 трлн долларов, что примерно в девять раз превышает валовой внутренний продукт РК в 2020 году. Экспортно-импортные операции в аэропорту составили почти 34% общего объёма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стран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есмотря на пандемию коронавируса, грузооборот аэропорта Инчхон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вырос на 23%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оставив 1 млн 620 тыс. тонн. Ожидается, что показатель по итогам года превысит 3 млн тонн впервые с момента открытия аэропорта.

Число одиноких пожилых южнокорейцев выросло за 5 лет на 36%

По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2 августа, в 2020 году в стране насчитывалось 1 млн 660 тыс. одиноких пожилых людей. Это 21,2% жителей страны старше 65 лет, и на 35,8% больше, чем в 2015 году. Что касае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старше 80 лет, то среди них насчитывается 470 тыс. одиноких.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увеличился за пять лет на 50,2%. Рост числа одиноких пожилых людей происходит параллельно быстрому старению насел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огнозами демографов, к 2025 году РК станет сверхстарым обществом, в котором доля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65 лет и старше достигнет 20%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В 2017 году страна стала пожилым обществом, когда доля таких людей превысила 14% населения. (RKI)

Сеул и Пхеньян снова решили подружиться

Южна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возобновить работу каналов регулярного общения, которые были разорваны Пхеньяном более года назад. Сеул при этом признал, что лидеры двух Корей с апреля этого года неоднократно обменивались личными посланиям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за этим последует потепление и возобновл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хотя эксперты до сих пор спорят, почему КНДР решила внезапно отойти от линии игнорирования и критики Южной Кореи, согласившись на диалог.

О том, какую важность этому событию придает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можно понять из антуража, с которым была обставлена новость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работы линий связи. Примерно в 11 часов утра 27 июля ведущие информагент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взорвались" экстренным сообщением со ссылкой на администрацию президента. В "молнии" говорилось,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ет распространено "чрезвычайно важное заявление, связанное с межкорейскими отношениями". После этого была прервана прямая трансляция даже ряда состязаний Олимпиады-2020,

где ожидалось, что корейские атлеты могут взять медали.

"Во вторник 27 июля с 10 часов утра Юг и Север Кореи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восстановить работу линий двусторонней связи", - зачитал заявление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президента РК Пак Су Хён. Чиновник добавил, что, еще начиная с апреля, лиде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неоднократно обменивались личными посланиями, в которых договорились возобновить межкорейский диалог, начав с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линий связи". По словам чиновника, Мун Чжэ Ин и Ким Чен Ын в своих письмах признали проблемы, который возникли из-за прекращ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ого общения, а также выразили поддержку народам двух Корей, которые сильно пострадали из-з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Согласно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снова стала действовать линия телефонной связи на границе, при этом проверочные звонки будут регулярно производиться дважды в сутки - в 9 часов утра и 5 часов вечера. Одновременно стала работать и линия "горячей связи" между военными РК и КНДР в Желтом море, которую также будут задействовать минимум два раз за день - в 9 и 16 часов.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Олимпийская чемпионка из Сингапура могла бы получить миллионы долларов призовых

Южнокорейские медалисты ток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получат значительные финансовые выплаты за свои достижения по возвращении домой.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выплатит по 63 миллиона вон (\$54 800) за каждую золотую медаль, 35 миллионов вон за серебряную и 25 миллионов вон за бронзовую. Медалисты командных состязаний получают 75 процентов от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выплат.

Стрелок из лука Ан Сан, трехкратная золотая медалистка ток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получит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57,5 миллиона вон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Кроме того, она получит 95 миллионов вон от фонда продвижения спорта Кореи. Начиная с этого месяца, 20-летняя спортсменка будет получать пожизненное ежемесячное пособие в размере 1 миллиона вон.

Ассоциация стрельбы из лука Кореи еще не сообщила о своих планах наград, но она выплатил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2,5 миллиарда вон медалистом олимпиады 2016 года в Рио де Жанейро. Она выплатила по 200 миллионов вон каждому золотому медалисту в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состязаниях и по 150 миллионов вон



в командных.

Размеры денежный выплат олимпийским медалистам варьируются от страны к стране, но самые высокие выплаты в размере 1 миллиона сингапурских долларов (\$740 000) индивидуальному золотому медалисту предлагает Сингапур. Награды в 500 000 сингапурских долларов ожидают серебряных медалистов и 250 000 сингапурских долларов – бронзовых.

ИА РУСКОР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и становятся домоседами

Число внутренних путешествий, совершенных южнокорейцами, резко упал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данные исследований.

Южнокорейцы совершили 225,19 миллиона внутренних путешествий в 2020 году, на 34,7 процента мен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говорится в докладе института культуры и туризма Кореи на основе обследования более 50 000 человек.

Доклад показывает, что южнокорейцы в среднем совершили 4,95 внутренних путешествий на человек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 сравнению

с 7,61 в 2019 году.

Расходы по внутреннему туризму на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упали на 45,7 процента до 530 000 вон (US\$470) в 2020 году. Средние расходы на одно путешествие также сократились на 18,8 процента до 109 000 вон.

Южнокорейские туристы понесли самые высокие расходы в янва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о средними тратами в 770 000 вон на человека, отмечается в докладе, гораздо выше, чем расходы в сезон летних отпусков в 568 000 вон в июле и 573 000 вон в августе.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й показывают, что индустрия внутреннего туризма страны существенно пострадала от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Южная Корея подтвердила первый случай COVID-19 20 января 2020 года и взрыв инфекции произошел в конце февраля в религиозной секте города Тэгу.

Среднее число посетителей 2 569 основных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Южной Кореи составило лишь 103 464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47,2 процента меньше, чем в 2019 году.

ИА РУСКОР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лигран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1 руб. 5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предлагаю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разработке стратегий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ных городов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в твоих руках!»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ут оставить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улучшению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в Анивском, Долин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Невельском и Холмском районах, а также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заполнить специальную форму на сайте sakhalin.itpgrad.ru.

В частности, принимаются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созданию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работы и жизни в городах и селах, обустройству нов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и площадок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творческого 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жителей, определению перспекти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выявлению проблем и недостатко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Информацию необходимо оставить на сайте до 31 августа. Затем данные будут систематизированы и сформированы в предложения для внесения в проекты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х документов.

В эт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заверша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временного овощехранилища с климат-контролем

Оно позволит одному из ведущих совхозов региона сохранять урожай моркови и свеклы свежим в течение года. Вместимость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объекта – 3 тысячи тонн.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проконтролир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Наши жители достойны того, чтобы питаться качественными продуктами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года. Поэтому вопрос хранения овощей требует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Отрадно, что островны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идут в ногу со временем. Внедрение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позволяет им не только сохранять свежесть продуктов, но и сдерживать рост цен,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озведение нового овощехранилища в Березняках началось в феврале этого года.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выполнены бетонирование фундаментов и железобетон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устройство металлического каркаса и монтаж пожарных емкостей. Работы на объекте завершены на 60 процентов. Сейчас строители приступают к установке сэндвич-панелей.

– Будем применять новые для Сахалина технологии. Сэндвич-панели покрыты особым материалом, который сможет противостоять высокой влажности. Он защитит конструкцию от коррозии, продлив тем самым срок службы овощехранилища, – рассказал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подря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Евгений Цой.

Технической начинкой овощехранилища станут климат-контроль, активная вентиляция и новейшие холодильные установки.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ая система позволит управлять микроклиматом помещений практически без участия человека. Оператор будет следить лишь за показаниями приборов.

–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а идет согласно графику.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предприятие планирует закладывать урожай моркови и свеклы в новое овощехранилище, – подчеркнула областной минист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Инна Павленко. – Кроме того, активная работа сейчас развернута во всех овощехранилищах региона.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я готовят их к закладке картофеля и овощей – проводят очистку, ремонтируют и отлаживают системы вентиляции.

Отметим,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имеется 71 овощехранилище вместимостью более 78 тысяч тон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азыва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по обновлению оборудования таких объектов в рамках отраслев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 развитию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 части технической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модернизации.

Почти 6 тонн рыбы бесплатно раздали на Северных Курилах

Задачу – обеспечить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вежей рыбой – пост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рганизована торговля дарами моря по доступным ценам. На Парамушире рыбу бесплатно раздают жителям, в том числе социально незащищенным категориям.

С апреля по июнь этого года было роздано 2,5 тонны белорыбицы, а в июле – 3,4 тонны лососевых. Раздача проводится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 один раз в неделю. В этой работ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рыбодобывающие предприятия: ООО «Алаид», ЗАО «Курильский рассвет», ООО «Гранис», АО «СК БСФ».

На сегодня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продали 118 тонн свежей рыбы.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езона добычи ассортимент меняется: минтай, треска, камбала, навага, терпуг, сельдь, мойва, краснопёрка, корюшка, кунджа.

В лидерах по объему продаж –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Поронайский район. Всего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 регионе планируется реализовать в свежем виде не менее 200 тонн даров моря.

Стоимость рыбы находится на постоянном контроле главы региона. Заключены соглашения с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о поставках для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качественной свежей рыбы по ценам ниже рыночных. Приобрести рыбу можно на ярмарочных площадках и в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ах.

На курильских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повысили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труда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труда создаются условия для роста доходов всех работающих граждан, тем самым сокращая разницу в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в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ях экономики. Реализац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тру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аходится на контрол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сотрудниками курильских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Алаид» и «Континент» в течение полугода работали эксперты в области бережливых технологий. На Парамушире для оптимизации выбрали процесс обработки трески, а на Итуруп – повторяющийся процесс от выгрузки лосося до складирования противней на паллеты.

– На их примере предприятия в дальнейшем буду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модернизировать другие направления,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компетенций в сфере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труда Елена Часникова.

Для повышения эффективности процессов на рабочих местах внедрили инструмент 5S. В компаниях запустил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центры, разработали матрицы компетенций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а также создали необходимые инструкции. В итоге, на предприятии «Алаид» уменьшили время обработки трески на 36 минут. В «Континенте» удалось увеличить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потока до 33 процентов и выработку на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до 21 процента. Также сократили время разделки лосося.

– По итогам проекта основную задачу мы выполнили. Увеличили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труда, что позволит получить экономический эффект до 11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год, –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Континент» Павел Ильин.

Внедряя технологии бережли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компании продолжаю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Напомним,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нацпроекту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труда» могут сахалин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которые относятся к базовым сырьевым отраслям – обрабатывающее производство,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транспор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торговля.

Около трёх тысяч детей посетят социальные экскурсии по Сахалину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ь бесплатно отдохнуть как внутри региона, так и в центральных городах страны. А ребята из других российских субъектов смогут посетить островную область.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финансируют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 Сахалине экскурсионные услуги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и воспитанников учреждений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предоставят пять остров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 «Омега-Плюс», «Амист», «Содружество», «Дрим», «Адреналин-тур». Они получили субсидии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конкурса, прошедшего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туризма.

– Каждый туроператор разработал свои экскурсионные программы по острову с акцентом на музей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все они размещены в свободном доступе на сай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туризма. Группы школьников, которые отправятся на экскурсии, будут сформированы при участ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 рассказала и.о. министра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я Пахолкова.

Также в этом году более 100 островных школьник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10 до 17 лет смогут посетить центральные города страны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я Россия», которая входит в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Культур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РФ и Российского союза туриндустрии.

В путешествиях по России ребята знакомятся с её историей и культурным разнообразием, любуются архитектурой старинных городов, посещают музеи, храмы, театры.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программа реализуется с 2013 год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нимает в ней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с 2014-го.

В этом году островные школьники ознакомятся с направлениями:

- «Золотое Кольцо. Суздаль» (Суздаль-Владимир);
- «Моя столица - моя Москва» (г. Москва);
- «Александр Невский» - святой покровитель града Петра (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Помимо этого, впервые региональ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туризма прорабатывается вопрос о запуске программы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России»,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планируют принять около 500 школьников из других субъектов страны.

За месяц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почти 500 дворов

Работы по устранению повреждений асфальтового покрытия на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ях выполняю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в формировании списков для ремонта оказали волонтеры, общественники и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которые направляют свои обращения на портал «Сахалин.Онлайн».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их поступило около тысячи. В работу берут дворы, в которых покрытие

разбито не более, чем на 30 процентов.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дворов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ён в 12 район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их числе – Долинский, Невельский, Холмский, Макаровский, Ногликский, Поронайский,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ий, Смирныховский, Тымовский, Томаринский, Охинский и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Для остальны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бласти продлен срок работы – благодаря помощи волонтеров количество заявок на ремонт увеличено. Всего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будет заасфальтировано более 6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полотна.

Самые масштабные работы развернут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196 дворов. Осталось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еще 330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С адресным перечнем планируемых работ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и в газет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егодн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ретился с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екта «Школа блогеров»

30 июля юные сахалинцы рассказали главе региона о своих проектах и планах. Сразу после два десятка начинающих блогеров отправились на обучение в Москву.

– Тема, которую поднимает, в том числе блогер, должна заинтересовать зрителя или читателя. Сейчас многие пытаются заниматься этим. Но мало у кого получается. Лаконично и красиво рассказывать о происходящем – это большое искусство. И наша с вами общая задача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таких людей на Сахалине было больше. Этому вы и едете учиться,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рассказал ребятам о ряде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реализу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В частности, о развитии туризма. Губернатор назвал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лучшими точками на планете, в которых ему приходилось бывать. Одним из направлений деятельности блогеров как раз может стать повествование о малой родине.

Эту тему для себя уже выбрала участница встречи Кристина Хидоятова. В своем ролике девушка представила лучшие, по её мнению, места на Сахалине. В рейтинге она разместила Клоковский водопад,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и маяк Анива.

– Мне нравится наш остров. Его природа и эстетика. Я решила осветить эту тему, потому что многие подростки считают, что у нас некуда сходить и нечего посмотреть. А ведь это не так. Природа Сахалина особенная и неповторимая, – поделилась Кристи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екомендовал девушке не бросать тему 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побывать на острове Итуруп, чтобы показать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широкому кругу.

Еще одна участница Дарья Байбарза представила ролик, в котором она проверяет, каково быть космонавтом. Девушка проходит испытание на гироскопе и имитирует состояние невесомости в бассейне и азотрубе, а также пробует еду для космонавтов.

– Мы снимали этот ролик ко Дню космонавтики. Мне интересна сфера медиа, я вижу свое будущее в ней. Поэтому «Школа блогеров» для меня будет большим толчком для получения необходимых навыков, которые могут понадобиться мне в будущей профессии. Рада, что прошла отбор.

Проект «Школа блогеров» реализуется молодеж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бласти. В течение двух недель участники, прошедшие региональный отбор, будут обучаться в столице. В программе – техника речи, основы медиапроизводства, работа в кадре, озвучание, монтаж, написание сценариев. Преподавать сахалинцам буду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журналисты, теле- и радиоведущие, педагоги.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конкурс «Горд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лили до 8 августа

Проект организован в рамках ежегодной преми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и курируется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Цель конкурса – признание достижений и заслуг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социальной и общественной сферах. Стать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Конкурс проходит по пяти номинациям: «Гражданская позиция», «Активное долголетие», «Выдающийся родитель», «Юный гражданин», «Известный островитянин».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екта могут стать проявившие себя при спасении людей и животных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ведущие актив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пенсионеры, многодетные родители, участвующие в общественно значимых проектах школьники и студенты. Также соперничать за «Горд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глашают островитян, которые, став успешными и узнаваемыми, прославили регион своим талантом, достижением или необычным поступком.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принимаются по адресу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gordost2021@sakhalin.gov.ru. Следующим этапом проекта станет голосование на сайте «ИД «Губернские ведомости» (www.skr.su).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KF, 한-중앙아 감염병 전문가 웨비나 개최

7월 28일부터 중앙아 5개국 대상 순차 개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임상치료 경험 공유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 이근) 산하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보건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한-중앙아 감염병 전문가 웨비나’를 7월 28일부터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웨비나 개최국은 ▲카자흐스탄(7.28) ▲타지키스탄(8.3) ▲우즈베키스탄(8.6) ▲키르기스스탄(8.12) ▲투르크메니스탄(8.20) 등 5개국이다.

이번 웨비나 시리즈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13차 한-중앙아협력포럼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중앙아 5개국의 감염병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국가별 현안에 맞춰 기획됐다. 포럼 당시 5개국 수석대표들은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 보건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대응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했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과의 협력 아래 마련된 이번 웨비나 시리즈는 한국의 감염병 관리체제와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임상치료 경험 등 분야별 주제발표를 통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경험을 중앙아 국가들에게 공유하게 된다. 아울러 중앙아 각국 보건부 관계자, 감염병 전문가, 보건의료 종사자 등이 참여해, 국가별 행사 개최 시 감염병 대응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번 웨비나는 한-러 순차통역으로 진행되며, 사전등록 신청은 웹사이트(www.kf-khidi.com 또는 www.kf-khidi.co.kr)에서 할 수 있다.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웨비나 시리즈를 통한 한국의 감염병 대응 경험 공유가 중앙아 5개국의 코로나19 극복에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보건의료 분야 한-중앙아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글로벌 공공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함께 극복해 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오리온, 러시아 누적매출 1조원 돌파

오리온은 러시아 법인 누적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만 단순 월 누계 기준 매출 506억 원을 올리며 중국, 베트남에 이어 러시아에서도 누적매출액 1조원을 넘어서는 금자탑을 세웠다.

2003년 러시아 법인을 설립한 오리온은 2006년 트베리에 공장을 짓고 현지 생산체제를 구축하며 22조 규모의 러시아 제과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공장 가동 첫해인 2006년 169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08년에는 노보예 제2공장을 건설하고 초코파이 생산규모를 대폭 확대해 650억 원의 연매출을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신제품 효과에 힘입어 역대 최고 연매출인 890억 원을 기록하는 등 2019년 이후 매해 두 자릿수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고성장 배경에는 현지인 입맛에 맞는 신제품 개발과 비스킷 라인업 확장 등 새로운 시장 개척 노력이 손꼽힌다. 초코파이는 차와 케이크를 함께 즐기는 러시아 식문화와 어우러지며 출시 초기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등 국민 파이로 자리잡았다.

2019년에는 오리지널 맛 중심에서 벗어나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체리', '라즈베리', '블랙커런트' 초코파이 등 '잼'을 활용한 초코파이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오리온 법인 중 가장 많은 10종의 초코파이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파이뿐만 아니라 '고소미', '촉촉한 초코칩', '크래크릿' 등 비스킷 라인업을 확대하며 제품군을 다양화한 것도 주효했다.

지난해에는 '제주용암수' 판매를 시작, 러시아 음료시장에도 진출하며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소득 수준이 높은 대도시와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한국 먹거리가 적극적으로 소비되는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러시아 대표 이커머스



러시아 현지 매장에 오리온 제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제공=오리온)

채널인 '와일드베리', '오존' 등에도 입점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러시아는 지형 특성상 물에 석회질이 함유돼 있어 국민 대다수가 물을 구매해 섭취하고 있고, 최근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프리미엄 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편, 오리온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러시아 트베리 크립조바에 신공장을 건설 중이다. 현재 가동 중인 2개 공장의 생산이 포화상태에 이를 정도로 러시아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신공장 건설을 통해 앞으로 매출 성장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신공장이 가동되면 초코파이의 공급량을 연간 10억 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파이, 비스킷 카테고리 신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여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시장을 공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러시아 법인은 철저한 현지화와 지속적인 제품력 강화를 통해 고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며 "신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또 한 번의 큰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어, 추후 그룹의 신성장동력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Экологическая номинация появилась в составе ежегодной преми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В номинации «На пути к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 лучшие практики» выберут 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е соблюдают принципы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В интервью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и водных ресурсов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лог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я Колтунович рассказала, какие новые процессы, проходящие в области, получили свое отражение в экологической номин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маяка», в чем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ерехода к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и как эта задача реализуетс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 **Наталья Степановна, расскажите, что такое «углеродная нейтральность», какие процессы подразумевает это определение?**

- Углеродная нейтральность, или нулевой уровень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означает, что объем эмиссии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не превышает объема поглощения, абсорбции. Разница между выбросами и их поглощением должна быть равна нулю. К примеру, в 2019 году у нас в области проведена инвентаризация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и их поглощения.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сформирован региональный кадастр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Кадастр размещен на сай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логии во вкладке «Климат» и доступен для ознакомления. Суммарный объем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эмиссия, составил 12,3 млн в CO2 эквиваленте, а поглощение составило чуть больше 11 млн.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разница составила немногим более 1,2 млн тонн в CO2 эквиваленте. Нам нужно реализовать климатические проекты, снизить выброс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до величины, равной выбросам 12,3 млн. Чтобы разница между эмиссией и абсорбцией стремилась к нулю. Это наша задача.

- **Какие компании могут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победу в экологической номин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маяка»?**

- У нас по критериям отбора победителей основные требования – это экологическая эффективность,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 производстве технологий, которые минимизируют негативное воздействие на окружающую среду, внедрение и наличие положитель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возможность тиражирования опыта и новизна предлагаемых решений и технологий. Уже сейчас у нас многие крупные компании стремятся свести к нулю выбросы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Ведь и парниковые газы, и те вещества, которые вместе с ними выбрасываются, оказывают значительное воздействие на окружающую среду. Одни компании сокращают свой углеродный след, используя более энергетически чистые технологии или новейшие материалы. А другие компенсируют свое воздействие путем участия в каких-либо социальных экологических проектах – озеленении территорий,

акциях по защит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Многие крупны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мпании – основные загрязнители – уже сейчас реализуют эти проекты.

- **Насколько высока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и осознанность компаний-загрязнителей на Сахалине в вопросах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внедряет низкоуглеродные технологии. В частности, наши крупные компании –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Эксон Нефтегаз Лимитед», Сахалинэнерго – уже реализуют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направлены на значительное сокращение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Н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это доброво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России пока нет четк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Тем не менее, компании в этом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и сами выходят с экологическими инициативами. И во многом это работа на опережение. В этом году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 своем послании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заявил, что надо уделить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изменению климата. Он дал поручение до 1 октября 2021 года разработать план мероприятий по снижению уровня углеродоемкости в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ике. Сократить выброс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которые образуются в результате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увеличить потенциал поглощения.

- **Почему именн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где всерьез озадачились достижением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 Наша область обладает уникальным потенциалом низкоуглеродного развития. У нас имеются природ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сех видов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источников энергии - солнечная, геотермальная, ветроэнергетика. Поэтому именно у нас запущен этот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по снижению объем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и повышению уровня их поглощения. Цель его – достичь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всей области к 2025 году. И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он создаст необходимые условия для внедрения тех технологий, которые способствуют снижению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в атмосферу.

- **В положении номинации сказано, что лучшие практики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возможно будет тиражировать на другие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Насколько они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сахалин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проводи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том числе, с целью его дальнейшего тиражирования и на другие субъекты РФ. С их стороны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появилась еще до того, как мы приступили к реализации этого проекта. Нам звонили из нескольких регионов, спрашивали, как подключиться к этому процессу.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кращения выбросов углекислых газов, углеродная нейтральность – это уже очевидная для всех жизненна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которую можно

достичь только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держат на контроле борьбу с неприятным запахом в селе Троицкое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Совещание о мерах, внедряемых для минимизации влияния фермы «Грин Агро-Сахалин» на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в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прове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лексей Белик. Участие в нем приня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едприятия и профильных областных ведомств.

Жители села Троицкого продолжают жаловаться на неприятный запах от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ой фермы компании «Грин Агро Сахалин», где содержится около двух тысяч голов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Жара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обострила ситуацию. Вместе с тем, как было отмечено, недавно построенная ферма возведена и эксплуатируется в полном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оектом, который прошел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экспертизы и согласования. При этом компания осознает сво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перед жителями села.

-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Они будут перерабатывать стоки с фермы. Новый объект должен кардинально изменить ситуацию, но для е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отребуется время. Сегодня задача «Грин Агро-Сахалин» - принять оперативные меры, которые снимут остроту проблемы уж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 сказал Алексей Белик.

- Мы понимаем, что запах причиняет дискомфорт жителям Троицкого, поэтому постоянно занимаемся этим вопросом.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собираемся установить покрытие на одну из лагун, в которую поступают жидкие стоки из коровников.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это устройство снизит интенсивность запаха. Если расчеты оправдаются, покрытия появятся и на остальных трех лагунах, - рассказал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Грин Агро-Сахалин» Владимир Балухта.

Такж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компания получит реагенты,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уются для нейтрализации запаха при производстве сахара. Ими обработают три лагуны, которые пока будут оставаться без покрытий.

Напомним, ферма в Троицком – крупнейший производитель сырого молок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в сентябре в этом же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компания «Грин Агро-Сахалин» запустит собственный молокозавод. Он будет поставлять на местный рынок различную высококачественную продукцию: молоко пастеризованное, йогурты и кефиры с наполнителями, творог, сметану, мороженое и полутвердые сыры. Также компания откроет в регионе сеть фирменных магазинов. В них продукция «Грин Агро-Сахалин» будет реализовываться без посредников, по ценам производител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사할린의 아동들, <베고웰로고르키> 여름 행사에 메달을 두고 경쟁

<베고웰로고르키> 대회가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관광단지 중앙
역에서 열렸다.

대회에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바이크 미 사할린' 벨런스 바이크(무
동력 무패들 자전거)학교와 '모토 65' 돌린스크 클럽에서 40여 명의 어
린 아이들이 무동력 자전거 타기에 참가했다. 경기는 만 2세, 만3세, 만
4세, 만5세 등 4개 연령별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행사 일환의 별
도로 '베고벨로오센(무동력 무패들 자전거 주행)' 극동지역 경기에 아
동들을 준비시키는 BMX(자전거 묘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올해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 관광단지에서 열리는 여름과 겨울철
행사를 '베고웰로고르키'라는 브랜드로 통합하기로 했다.

겨울에는 눈 쌓인 슬로프에서 경주를 하고, 여름에는 일정 시간 자
전거의 기술적 요소 수행 및 난코스 통과의 1인 주행 경기를 진행한
다."고 경기 주최자인 '바이크 미 사할린' 무동력 자전거 학교의 대표
이반 부타코브가 전했다.

이날 아동들은 균형을 위한 요소(균형을 잡게 하는 통나무와 널판)
을 포함한 코스를 주행해야 했다.

회전 통과 실력은 곡선 구간에서 평가되었고, 거기에 어린 선수들이
땅에 발을 딛지 않고 균형을 잡고 서거나, 앉아서 구간을 통과할 때는 추

가 기술 점수가 붙는 방식으로 실력이 평가되었다. 주행 코스에는 매트
와 하강 코스의 인공 장애물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아동들은 올라갈 때
하중을 분산시키고, 내려갈 때 하중을 실어 내려가는 실력을 보여주었다.

Сахалинские малыши сразились за медали летней "Беговелогорки"

Соревнования "Беговелогорка" состоялись на средней стан-
ции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Мастерство катания на беспедаль-
ных велосипедах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около 40 ребят из южно-са-
халинской беговелошколы "Bike me Sakhalin" и долинского
клуба "Moto 65".

Состязания прошли в четырё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ах: 2+, 3+,
4+ и 5+ лет. Отдельно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состоялся констест
по BMX — это подготовка ребят к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 соревнова-
ниям "БегоVELOосень".

— В это году мы решили объединить все наши зимние и летни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под одним брендом "Бегове-
логорка", — поделился подробностями организатор соревнований,
руководитель беговелошколы "Bike Me Sakhalin" Иван Бутаков. —
Зимой мы проводим гонки по снежному склону в формате сноу-рэй-
синг. Летний формат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одиночные заезды на время,
выполнение технических элементов и сложность прохождения.

В этот день ребят ожидала трасса, включающая элементы на
равновесие: балансировочные брёвна и доски. Умение проходить
повороты оценивали на "змейке", притом, учитывалась и техника
— если юные спортсмены проезжали её в балансе сидя или стоя,
не отталкиваясь от земли, насчитывалис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бал-
лы. Также на маршруте были расположены искусственные пре-
пятствия — маты и горки. На последних дети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умение распределять нагрузку в подъёме и разгрузку при спуске.
(сак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ВНИМАНИЕ!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
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водит сбор подписей сахалин-
ских корейцев (2-ое поколение), чьи
родители умерли, не воспользовав-
шись возможностью репатри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до принятия
Спец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
ских корейцев).

Сбор подписей проводится для
внесения поправок в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будет прохо-
дить по 31 августа 2021 г.

Дни приема: вторник и четверг с
11.00 до 17.00 (перерыв на обед с
13.00 до 14.00)

РООСК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
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
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
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
mail.ru, skr@sakhalin.ru

Реклама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SAKH.COM • БИЛЕ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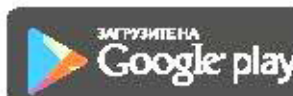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